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10차 신학포럼

- 발표 -

이춘구 박사 · 조미나 박사

- ❖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 ❖ 장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본관4층 설교센터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목 차

·일 정 표 ----- 4

·알리는 말씀 ----- 5

·발표1: "해석학적 맥락화를 활용한 내러티브 본문(갈3:1-24)
해석과 설교 연구"

❖ 이춘구 박사 ----- 7

·발표2: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독교적 소통과 공감의 가능성 연구"

❖ 조미나 박사 ----- 35

일 정 표

순서 및 담당(전체 진행: 김지혁 교수)

10:30-10:43

- 개회사 및 환영 인사
- 개회기도
- 학회장 인사 : 박태현 교수
- 발표자 소개

10:43-11:23

- 발표1 : 이춘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해석학적 맥락화를 활용한 내러티브 본문(갈3:1-24) 해석과 설교 연구”
- 발표2 : 조미나 박사(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독교적 소통과 공감의 가능성 연구”
- 질의 및 응답: 각 15분 정도 발표 후 질의응답(약 10분 예정)

11:23-11:35

- 신진학자 격려금 전달식 : 박태현 교수
- 학회 광고
- 폐회기도

11:35-11:40

- 기념사진 촬영 : 이상무 간사

11:40-13:00

- 식사장소 이동 및 식사 교제
식당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앙로 145 엘포트몰 3층(거궁 광교점)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10차 신학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발표와 진행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포럼이 끝난 후 중식이 제공되오니,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식당 주소는 4페이지 일정표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본 학회는 실천 신학자들과 현장 목회자들의 지혜를 모아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 정립과 실천 신학적 원리 탐구 및 구체적 방법론을 교회와 사회 현장에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에 창간한 「복음과 실천신학」은 2012년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지로 선정되었고 매년 4회(2월 2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발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4회의 정기 학술회를(신학포럼 2회, 정기학술대회 2회)개최하고 있습니다.
4.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복실 홈페이지(<http://kept1997.kr>)에서 논문검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을 통한 논문검색과 논문 투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43회 정기학술대회가 2022년 11월 12일(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엔데믹(endemic) 시대의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1]

해석학적 맥락화를 활용한 내러티브
본문(갈 3:1-24) 해석과 설교 연구



이춘구 박사 (합동신학대학원/ Th. D.)

국문 초록

성경적이면서 능력 있는 강해설교의 실현이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부터 시작된다. 는 점에서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신학적, 해석학적, 의사소통적 세 차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설교자의 이러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본문의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올바르게 해석되고 설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교자가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강해설교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이다. 하지만 설교자가 의지를 가지고 강해설교를 실현하려 해도 복잡한 구조의 난해한 본문을 만나면 본의 아니게 본문의 최종 의미와 다른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약의 사도들의 구약 인용, 즉 상호본문성 본문을 강해할 때, 설교자들이 표층적인 의미만 추출하여 설교하거나, 혹은 단순히 구약의 정보만을 전달하여 본문의 맥락과는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설교는 본문이 드러내는 최종 의도와 본문 저자의 궁극적인 의도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해설교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설교자가 상호본문성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문 저자의 궁극적인 의도를 반영한 강해설교를 실현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학적 맥락화’를 제안한다. 해석학적 맥락화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지속적이며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실재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설교의 구성 요소인 신학적, 해석학적, 의사소통적 세 차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설교의 모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호본문성 본문을 설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해석학적 간격을 좁히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을 실재론적 관점에서 논증한 후, 이를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 내러티브 본문(갈 3:1-24)에 적용하여 해석하

고 이를 토대로 강해설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이 신약의 내러티브 본문을 설교하는데 가장 적합한 강해설교의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해석학적 맥락화, 상호본문성, 아브라함 내러티브, 추체험, 강해설교

I. 들어가는 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즉 ‘성경의 내러티브’를 살리는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은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이다.¹⁾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의 최종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청중에게 적절한 형태의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교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 설교자, 청중, 성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설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강해설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Haddon Robinson은 강해설교를 일종의 철학이라고 말했다.²⁾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해설교란 본문의 최종 의미와 본문 저자의 수사적인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성경 본문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경적인 설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설교자가 신약 사도들의 구약 인용 본문을 의미하는 상호본문성 본문에서 의미의 최종 맥락을 발견하고, 이를 성경의 내러티브를 살려 생생한 설교 메시지로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상호본문성 본문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삼중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일은 물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속성 및 불연속성, 약속과 성취의 관점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작업이 현장의 설교자에게 쉽지 않다 보니, 설교가 본문이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의미맥락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설교 강단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한 예로, 상호본문성 본문의 특징이 두드러진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비판’임에도 불구하고,⁴⁾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결론을 거부하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위선적 영성에 대한 바울의

1) John R. W. Stott, 『갈라디아서 강해』, 정옥배 옮김 (서울: IVP, 2007), 112.

2)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80), 22.

3) Richard B. Hays,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서 3:1-4:11의 내러티브 하부구조』, 최현만 옮김 (서울: 예클레시아북스, 2013), 381.

4) 김동현,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하)』 (서울: 서로사랑, 2010), 12-3.

비판'이라고 주장한다.⁵⁾ 전자가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해석의 결과라면, 후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해석의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본문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은 상호본문성 구조의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설교자가 이러한 성경 해석의 오류를 피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해설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삼중 해석, 즉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세 차원의 통합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본문의 의미 맥락을 살려서 설교해야 한다. 그럴 때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최종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물론, 본문 해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설교야말로 성경적이며 능력 있는 설교라 할 수 있다.⁶⁾ 그러므로 강해설교자에게는 본문의 최종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틀이 요구된다.⁷⁾ 즉, 하나님의 '말씀'(Text)과 '상황'(Context)과의 만남 사건을 인지하고 강해설교할 수 있는 해석학적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설교자가 사도들의 구약 인용 본문을 설교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해석학적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설교의 개념으로써 '해석학적 맥락화'(hermeneutical contextualization)를 제안한다. 해석학적 맥락화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에 침투하여 깨달음과 변화, 그리고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흐름을 설교자가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생한 설교의 메시지로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필자는 이 개념을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 내러티브 본문(갈 3:1-24)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본문 저자인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의도를 반영한 강해설교의 실례를 제시함으로써 해석학적 맥락화가 내러티브 본문에서 발생하기 쉬운 해석학적 간격을 좁히는 데 매우 유용한 설교의 개념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5) 권연경,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5),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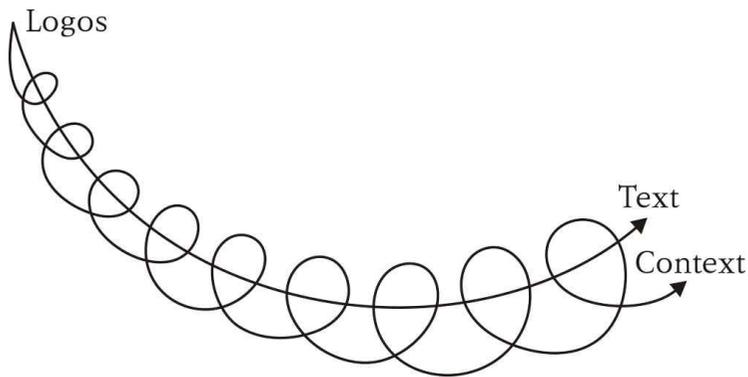
6) Cornelis. Trimp, 『구속사와 설교』, 박태현 옮김 (서울: 솔로몬, 2018), 25.

7) 박윤만, “신약 성서 본문의 문맥에 대한 인지 언어학적 고찰”, 『Canon&Culture』 3/1 (2009/04): 243.

II. 펴는 글

1. 해석학적 맥락화 개념에 대한 실재론적 논증

해석학적 맥락화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구속 역사에 진행하시는 과정을 실재론적 관점에서 해명한 개념이다. 흔히 “구속사적 설교”라고 불리는 설교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현장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실현하는 것을 막연하게 한 측면이 있었다.⁸⁾ 이러한 설교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이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개념이 바로 해석학적 맥락화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해석학적 맥락화: 로고스의 역동적인 흐름>

본 연구는 해석학적 맥락화 개념을 해석학적 실재론에 근거하여 논증한다. 그 이유는 “선포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predicatio verbi Dei)이라고 선언했던 개혁주의 설교자들의 신앙고백과 같이,⁹⁾ 하나님 말씀의 흐름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곧 실재가 되기 때문이다.¹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실재론적 개념으로서의 설교를 구성하는 세 차원인 신학적 차원, 해석학적 차원, 의사소통적 차원에서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을 순서대로 논증한다.

8) John M. Frame,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이경직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5), 22.

9) Gordon D. Fee and Douglas Stew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Bible* (Grand Rapids: Academic, 1982), 27.

10) Kevin J.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김재영 옮김 (서울: IVP, 2003), 50.

1) 신학적 차원의 맥락화

올바른 신학에 기초한 설교자의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¹¹⁾ John Stott가 “우리가 믿는 신관에 따라 우리가 전하는 설교의 본질이 결정된다”라고 한 말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¹²⁾ 그러므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기에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 설교의 주체이신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1) 삼위일체 하나님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전하기보다, 삼위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전하고자 하였다(살전 1:5). 청교도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Jonathan Edwards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 아름다움과 거룩을 주체 바깥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실제 실행에 옮기는 행위자”라며 삼위 하나님을 현현(顯現)의 의지를 갖추신 분으로 이해했다.¹³⁾ 한편, 남침례교 설교학자인 Abraham Kuruvilla는 설교자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선포해야 함을 강조했다.¹⁴⁾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설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2) 하나님 말씀의 계시적인 사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강조한 사도 요한은 ‘말씀’(Logos)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한다(요 1:14). 이러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낮추셨다. Ronald Wallace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John Calvin은 말씀과 성례전을 “그분의 낮아지심의 형식(形式)”이라고 표현했다.¹⁵⁾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속성의 말씀을 보이는 형태의 말씀으로 전환하여 이해한 것을 의미한다. 즉, 그는 말씀과 성례전을 계시의 수단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에게 이러한 이해가 불가피했던 이유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지각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세기 화란의 실천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전환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Sydney Greidanus는 “‘상황’은 영원한 하나님이

11) Johan H.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4), 97.

12) John R. W.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옮김 (서울: 생명의샘, 2004), 114.

13) 이상현, 『삼위일체, 은혜 그리고 믿음: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34.

14) Abraham Kuruvilla, 『설교의 비전: 목회 사역의 심장을 이해하기』, 곽철호·김석근 옮김 (서울: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8), 24.

15) Ronald S. Wallace,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46.

자신의 로고스를 계시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한다”며 로고스의 신학을 토대로 한 구속사 관점의 설교를 강조했다.¹⁶⁾ Jacob Firet도 목회 사역의 핵심적인 과제가 “말씀의 형태로 자기 백성의 영적 변화와 성숙의 역동성(agogic)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케리그마’(Kerygma, 설교), ‘디다케’(Didache, 교육), ‘파라클레시스’(Paraklesis, 상담)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¹⁷⁾ 특히 Cornelis Trimp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방식이 직선적(linear)이 아니라 나선형적(spiral)임을 주장함으로써 말씀의 진행 과정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¹⁸⁾ 이처럼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행되는 방식을 가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 했던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계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3)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사도 요한의 증언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요 1:1-3). 이러한 비가시적 형태의 말씀은 가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최초의 계시 수납자들과 만나주셨고, 이후에 계시 수납자들에 의해 문서에 기록되었다. 문서에서 기록된 말씀은 신약에 들어와서 성육신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다. 이러한 신학에 기초하여 요한은 성육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요 1:14).

사실상 Calvin의 제네바 목회는 성육신 원리를 목회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보이는 말씀으로써의 성찬을 자주 거행하였고, 각 성도의 가정에 찾아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다.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를 통합하고자 했던 그의 목회 철학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들리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구현하는 목회를 지향하였다.¹⁹⁾

David Day는 이러한 성육신의 개념을 설교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설교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성육신적 설교와 커뮤니케이션』(*Embodying the Word: A Preacher's Guide*)에서 체화된 개념으로서의 설교를 주장했다.²⁰⁾ 그의 주장의 핵심은 설교가 이론적인 것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되며, 가시적인 세계에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Day의 이러한 주장은

16) Sidney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권수경 옮김 (서울: SFC, 2013), 268.

17) Jacob Firet, *Dynamics in Pastoring: The Agogic Moment in Pastoral role-fulfill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6), 29.

18) Trimp, 『구속사와 설교』, 168-69.

19) Wallace,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54.

20) David Day, 『성육신적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최승근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7.

Calvin의 설교 철학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4) 설교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전환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려는 설교학의 핵심 과제이다.²¹⁾ 특히,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의 해석학적 간격을 연결하는 주체로서 성령의 존재와 그 역할을 소명하는 일은 설교학자들의 큰 관심 주제가 아닐 수 없다.²²⁾ 이런 맥락에서 정창균 교수의 다음의 말은 설교에서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마치 사람의 의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성령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에 접목시키시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이야기에 변화가 생기고, 또한 청중의 본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설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새로운 실체를 창조하는 하나의 사건(event)이다. 즉 설교는 성령의 행위이시며, 성령께서 그 안에 능동적으로 간여하시는 사건이다.²³⁾

결국, 설교에서 성령의 존재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한 설교자는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언어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는 일과 성령의 도우심을 위한 말씀 묵상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²⁴⁾

2) 해석학적 차원의 맥락화

Walter Brueggemann이 말했듯이, 한 편의 설교가 실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설교자의 해석 행위는 불가피하다.²⁵⁾ 이런 점에서 Fred Craddock이 설교를 “해석의 쌍둥이 과제”(the twin tasks of interpreting)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은유이다.²⁶⁾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부터 그를 만나 주신다.²⁷⁾

21) Richard R. Osmer,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김현애·김정형 옮김 (서울: WPA, 2017), 45.

22) Kuruvilla, 『설교의 비전: 목회 사역의 심장을 이해하기』, 141.

23) 정창균, 설교자하우스, “성경의 문학 형식과 설교 형식”, (2020년 9월 22일), 2021년 9월 22일 접속. 해당사이트: <https://preachers.house>.

24) Walter. Brueggemann,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홍병룡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22.

25) Brueggemann,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176.

26) Fred B.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125.

27) Richard B. Hays, 『상상력의 전환: 구약성경의 해석자 바울』, 김태훈 옮김 (성남: QTM, 2020), 286.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Text)이 설교자의 이해(context)에 침투하셔서 ‘해석학적 사건’(hermeneutical event)을 일으킨다.²⁸⁾

(1) 해석학적 출발점: 성경 본문

성경적인 설교는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연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을 연구하는 행위에 대해 Graeme Goldsworthy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하여, 말과 역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잘 설명하였다.²⁹⁾ 한편,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 성경의 관점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본문의 최종 의미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³⁰⁾ 이런 점에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신학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³¹⁾

한편, 이러한 해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설교자는 성경이 내용과 형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Thomas Long은 자신의 저서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교』(*Preaching and Literary Forms*)에서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학 형식(literary form)과 역동성(dynamics)을 강조한 바 있다.³²⁾ 그에 따르면, 본문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해석의 결과는 달라진다. Richard Jensen도 성경의 내용과 형식이 본문과 설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³³⁾ 즉, 성경은 형태(shape), 진행(movement), 내용(content)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³⁴⁾

(2) 해석학적 과정: 설교자의 추체험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추체험할 수 있다. ‘추체험’이란 영국의 역사학자 R. G. Collingwood가 처음 주창한 용어로서, 역사 연구자가 과거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지적인 경험

28) 이승진, “성령 하나님과 설교자의 설교학적인 상호관계”, 『신학정론』 32/1 (2014/05): 239.

29) Goldsworthy, 『성경 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167.

30) Ellingsen, *The integrity of biblical narrative: Story in theology and proclamation*, 19.

31)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37.

32) Thomas G. Lon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박영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1.

33) Richard A. Jensen, *Telling the Story: Variety and imagination in preaching* (Minneapolis: Augsburg, 1980), 128.

34) Richard L. Thulin, *Retelling biblical narratives as the foundation for preaching* (New York: Pilgrim Press: 1990), 7.

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³⁵⁾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과거에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인지적으로 경험, 즉 추체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설교에서의 추체험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의 의식 세계가 만남으로 발생하는 ‘해석학적 사건’이다.³⁶⁾ Cilliers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제공하는 강력한 사건”이다.³⁷⁾

한편, 해석학적 사건은 언어를 통해 발생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언어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경 해석 과정에서 본문과 자신의 인식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언어를 경험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설교자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설교자는 본문의 최종 의미에 도달한다. 이런 점에서 성경 언어를 통한 설교자의 인지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식에 찾아와 주시는 성육신적인 사건이다. 즉, 성경의 언어가 설교자의 인식에서 실재(reality)가 된 것이다.³⁹⁾ 물론, 김영한의 말대로 이러한 실재를 이해함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관점에 따른 규정(規整, Konstitution)이다. 우리는 없는 실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해석대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다.⁴⁰⁾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언어는 실재가 된다. 즉, 설교자의 인식에서 성경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설교자의 이해는 본문의 세계로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⁴¹⁾ 즉, 성경의 언어 세계와 설교자의 언어 세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세계는 설교자의 인식 속에서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3) 해석학적 목적지: 청중 이해

설교자의 성경 해석은 설교 준비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바람직한 설교 준비에는 청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⁴²⁾ 그러나 전통적인 설교학은 신설교학에 비해 청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35) John Dewey, 『사고와 방법』, 임한영 옮김 (서울: 법문사, 1979), 41.

36) Paul Scott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20-1.

37)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184.

38) 조안나, 『성서 언어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30.

39) 조안나, 『성서 언어 해석학』, 57.

40) 김영한, “기독교 인식론으로서 해석학적 실재론”, 『기독교철학』 9 (2009/12): 7-8.

41)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68.

42) Charles V. Gerkin, 『살아 있는 인간문서: 해석학적 목회상담학』, 안석모 옮김 (서울:

것은 사실이다.⁴³⁾ 아무리 정확한 주해와 신학에 정통한 설교라 하더라도 청중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청중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ohn Frame은 설교자가 청중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삼중관점의 기독교 윤리’(triperspectivalism Christian ethics)를 제시하였다.⁴⁴⁾ 그에 따르면, 기독교 윤리의 토대가 되는 삼중관점은 ‘실존적 관점’(existential perspective), ‘규범적 관점’(normative perspective), ‘상황적 관점’(situational perspective)의 세 차원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승진 교수는 설교에서 청중 이해의 방법으로써 메타 내러티브(metanarrative, 거대담론), 기독교적인 내러티브(Christian narrative), 신앙공동체 정체성 내러티브(Communal identity narrative), 신자 개인의 정체성 내러티브(individual identity narrative)를 제시하였다.⁴⁵⁾ 이러한 방법들은 설교자가 청중의 본질과 실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이다.

3) 의사소통적 차원의 맥락화

해석학적 맥락화의 세 번째 차원은 의사소통적인 차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인 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⁴⁶⁾ 앞서 확인했듯이, 삼위의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신다. 또한, 성경은 그 자체로 내용과 형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기능을 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소통적 기능을 가진다는 말은 ‘말씀’(Text)과 ‘상황’(Context)의 ‘만남 사건’을 통해 인간 설교자가 혹은 청중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

(1) 설교에서 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communication)에서 ‘공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common’은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하였다.⁴⁷⁾ 따라서 의사소통이란 화자와 청자 또는 저자와 독자 간에 공통적인 의미를 공유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설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자와 하나님,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의사소통 행위이다.⁴⁸⁾ 그래서 Stott는 설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12.

43) Frame,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22.

44) Frame,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89-95.

45) 이승진, “복음과 상황의 설교학적인 상관관계,” 『성경과신학』 59 (2011/09): 126-7.

46) G. D. J. Dingemans, “A Hearer in the Pew: Homiletical Reflections and Suggestions”: 1996a. in: Thomas Long & E. Farley (eds) *Preaching as a Theological Task: World, Gospel, Scripture: In Honor of David Buttrick*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40.

47) Kuruville, 『설교의 비전: 목회 사역의 심장을 이해하기』, 114.

교를 “단지 강해(exposition)가 아니라 소통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며, 단순한 본문의 주해(exegesis)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정의했다.⁴⁹⁾ 사실, 그가 제시했던 ‘다리 놓기’(bridge building) 모델 또한 과거 본문의 세계와 오늘날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설교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다. 설교자가 설교의 소통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소통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Greidanus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설교학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관련된 어떤 형식적인 기교로 축소시킬 수 없고, 해석학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양자 간에 한 가지 사실을 공유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여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는 특정한 사회 구조가 결정한다. 예를 들면 가정, 학교, 회사, 국가, 교회 등등 설교는 교회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다.⁵⁰⁾

(2)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 상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진행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수사학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수사학이란 “특정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설득 수단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⁵¹⁾ 성경의 이야기도 본문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설득하기 위한 언어로 구성된 일종의 수사적인 장치다. 따라서 설교자의 메시지는 명제적인 사실이나 정보의 전달 정도가 아닌, 개연성 있고 설득력 있는 의미의 전달이어야 한다.⁵²⁾

이를 위한 설교자의 성경 해석 과정에서 Vern Poythress가 제시한 성경 해석 방법론은 설교자가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해석의 차원과 소통의 차원을 구분하면서 ‘의미의 삼각대’라는 성경 해석 방법론을 제시했다.⁵³⁾ 의미의 삼각대란 성부는 원형이시고, 성자는 현시하며, 성령은 동시 발생하신다는 삼위일체 중심의 의사소통 모델이다. 이

48) H. J. C. Pieterse,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정창균 옮김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50.

49) John Stott, *Between Two Work: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137.

50)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15-7.

51) 권순희, 『작문교육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50-2.

52) Werner G. Jeanrond, 『신학적 해석학: 해석학의 역사와 특성』, 최덕성 옮김 (서울: 본문과현장사이, 1997), 209.

53) Vern S. Poythress,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학』, 최승락 옮김 (고양: 이레서원, 2018), 187.

모델은 일반적인 소통의 구조를 응용하여 삼위의 하나님을 발화자의 의사표현(expression), 발화된 메시지의 정보(information), 청자의 효과 산출(production)으로써 전환하여 이해한다.

결국,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소통 의지를 반영한 책이다. 즉, 성경은 언어의 재구성을 통해서 수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관점은 설교자가 성경의 비 이야기체의 본문을 다룰 때, 전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 통일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⁵⁴⁾ 즉, 설교자로 하여금 전체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의 이야기가 특정한 상황과 만나서 특정한 의미로 발생함을 깨닫게 한다.⁵⁵⁾ 즉, 성경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식으로 전환된다.

(3) 신앙공동체적 차원의 의사소통

설교의 근본적인 과업 중의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⁵⁶⁾ 따라서 강해설교란 전체 성경의 맥락과 본문의 작은 맥락에 관한 두 이야기를 서로 통합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라 재정의할 수 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William Beardslee는 두 맥락의 이야기가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로 채택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⁵⁷⁾ 즉, 성경 이야기가 설교를 통해 교회의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⁸⁾ 이처럼 신앙의 전수 과정에서 ‘이야기’는 창조적 자유를 존중하면서 케리그마를 보존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내러티브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렇다면 강해설교에서 성경의 큰 맥락의 이야기와 작은 맥락의 이야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Charles Campbell은 Hans Frei가 제시한 문화-언어적 모델을 인용하여 두 맥락의 이야기를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⁵⁹⁾ 이렇게 통합된 이야기는 청중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⁶⁰⁾

54) Mark. Ellingsen, *The integrity of biblical narrative: Story in theology and proclamation* (Minneapolis: Fortress, 1990), 22.

55) Wayne McDill, 『강해설교를 위한 12가지 필수기술』, 최용수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36.

56) Ellingsen, *The integrity of biblical narrative: Story in theology and proclamation*, 19.

57) William A. Beardslee, *Biblical preaching on the death of Jesus* (Nashville: Abingdon, 1989), 151-7.

58) 남은경, “리피르의 성서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내러티브 읽기와 구성주의 페다고지”, 『기독교교육논총』 23 (2010): 364.

59) Charles L. Campbell, 『프리칭 예수』,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295-302.

60) John McClure, *Other-wise Preaching: A Postmodern Ethic for Homiletics* (St.

결국, 이야기는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임이 틀림없다.

(4) 청중의 인지적 수용력을 높이는 소통

설교자가 설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청중의 인지적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소통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리는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중의 깨달음을 촉진한다.

첫째, 성경 본문은 하나의 중심 명제로 설명되어야 한다. Timothy Warren은 본문에서 하나의 명제를 뽑아내서 이를 청중의 상황에 적용하는 설교의 방법인 ‘설교의 상황화’를 제안하였다.⁶¹⁾ 이 방법에 따르면 설교자는 먼저 삼중해석을 통해 주해의 중심사상(exegetical main idea)을 발견하고, 이후 본문 텍스트와 의미 차원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과거 역사적인 상황을 제거하여 본문의 의미를 보편화시키는 ‘신학적인 중심사상’(theological main idea)을 도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의 보편적인 의미를 다시 현대 청중의 상황에 적실하게 재조정하여 ‘설교의 중심사상’(homiletical main idea)을 도출한다.

둘째, 설교자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전의 깨달음’을 설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대 수사학의 출발을 알린 아리스토텔레스는 “반전이란 행해지는 것이 반대로 역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변화는 개연적 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⁶²⁾ 이러한 반전의 형식은 청중의 깨달음을 촉진하고 청중의 삶을 변혁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John Wright는 이러한 반전의 깨달음이 성경의 내러티브 가운데서 진행될 때, 이는 청중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심의 수사학(a rhetoric of turning)’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⁶³⁾

지금까지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을 실재론적 관점에서 논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진행하신다. 이러한 과정이 설교의 구성 요소인 신학적, 해석학적, 의사소통적 세 차원에서 해명되었다는 점은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이 강해설교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2. 아브라함 내러티브(갈 3:1-24) 해석과 설교

Louis, MO: Chalice, 1988), 150.

61) Timothy E. Warren, “The Theological Process in Sermon Preparation,”

Bibliotheca Sacra. vol. 156. no. 623 (July-Sep 1999): 336-54.

62) Aristotle, 『시학』, 천병희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9), 64.

63) John W. Wright, 『하나님 말씀중심의 설교』, 박현신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108.

1)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대한 기본 이해

(1)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구조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라 불리는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보통 서신서의 형식에 따라 도입부(1:1-5), 본론부(1:6-6:10), 종결부(6:11-18)로 구분된다.⁶⁴⁾ 구체적으로 도입부는 발신자, 수신자, 축도로 구성된 인사말과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을 다루고, 본론부는 갈라디아교회의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다루며, 종결부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비판과 십자가 절대 신앙을 위한 훈계 및 갈라디아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와 축도로 구성되어 있다. 좀더 세부적인 구조를 살피기 위해서는 Hunter Betz와 Thomas Schreiner의 구분을 비교하는 것은 유익하다.

먼저 Betz는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① 서언(Prescript) 1:1-5 ② 본체(Body) 1:6-6:10 ③ 서론부(*Exordium*) 1:6-11 ④ 진술부(*Narratio*) 1:12-2:14 ⑤ 주제 제시부(*Proposito*) 2:15-21 ⑥ 논증부(*Probatio*) 3:1-4:31 ⑦ 권고부(*Paraenesis*) 5:1-6:10 ⑧ 후기(Postscript) 6:11-18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그가 기본적으로 본서를 논증적인 서신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⁶⁵⁾

이와 달리 Schreiner는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연설을 소개하고 이어지는 내용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단계를 의미하는 서론(*Exordium*), 주된 제안이나 논제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포함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서술(*Narratio*), 제안에 대해 논증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입증(*Probatio*), 전체 논증을 요약하고,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호소력 있는 결론으로 이끄는 단계를 의미하는 마무리(*Peroratio*)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⁶⁶⁾

이처럼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논증적인 서신으로 이해하면서도 구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Schreiner의 지적대로, Betz의 구분에는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의도적인 측면, 수사학적인 측면, 문학적인 실례의 측면, 유대적 배경의 측면이 배제되어 있다.⁶⁷⁾ 이와는 반대로 Schreiner는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본서의 구조를 구분하였다. 갈라디아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정황과 바울이 처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Schreiner의 주장이 더 신뢰할 만하다.

64) 한성천 & 김시열,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갈라디아서-에베소서』, (서울: 제자원, 2004), 26.

65) Thomas R. Schreiner, 『바울 서신 석의 방법론』, 이승호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48에서 재인용.

66) Thomas R. Schreiner, 『존더반 신약주석: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김석근 옮김 (서울: 디모데, 2017), 153.

67) Schreiner, 『바울 서신 석의 방법론』, 49-50.

(2)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특징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할 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내러티브 본문이 지닌 특징을 고려할 때 본문의 최종 의미와 본문 저자의 궁극적인 의도를 추적하는 일은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서의 특징은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다.

첫째, 갈라디아서는 논쟁적 서신이다. 갈라디아서에는 본서를 기록한 시기에 대한 문제, 바울이 어느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인지에 대한 수신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⁶⁸⁾ 그럼에도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본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동반된다면 설교자는 갈라디아서에 관한 해석과 설교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Barclay가 제시한 ‘거울 보기식 읽기’(Mirror-Reading)를 들 수 있다.⁶⁹⁾ 그에 따르면, 거울보기식 읽기 방법을 통해 해석자는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물론 더 나아가 본문 저자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갈라디아서에는 상호본문성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약 본문을 무려 14회나 인용했다(창 12:3, 13:15, 15:6, 16:15, 17:8, 21:2; 10: 12, 레 18:5, 19:18, 신 27:26, 21:23, 사 54:1, 합 2:4). 이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하면 적은 수일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Richard Hays에 의하면, 신약의 사도들이 인용한 구약 본문은 신약으로 넘어와 새로운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내러티브로 전환된다. 내러티브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인 장치를 의미하므로,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신약의 갈라디아교회가 참복음으로 회귀하도록 설득하는 내러티브로 이해할 수 있다.⁷⁰⁾ 이러한 관점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설교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다. 정창균 교수의 말은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바울서신은 구체적인 설교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읽을 것을 전제로 기록한 편지였다. 이런 점에서 바울서신은 단순한 문학적 장르로서의 서신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바울의 생생한 육성이 들리는 것 같은 편지요, 곧 바울의 설교인 것이다.⁷¹⁾

68) Douglas J. Moo, 『BECNT 갈라디아서』, 최원용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41.

69) J. M. G. Barclay, “Mirror-Reading a Polemical Letter. Galatians as a Test Case”, *JSNT* 31 (1987), 73-93.

70) Stott M. Gibson, 『구약을 설교하기』, 김현희 옮김 (서울: 디모데, 2008), 98-9.

71)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72.

2) 설교학적 상호본문성을 통한 아브라함 내러티브 본문 해석

설교학적 상호본문성은 성경 본문의 최종 의미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며, 또한 본문의 중심사상을 역동적으로 전달하는 성경 해석 방법론이다. 따라서 해석학적 맥락화 개념으로 내러티브 본문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설교학적 상호본문성은 적합하다.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방법론에 따른 성경 해석의 과정은 다음의 4단계로 진행된다.⁷²⁾ 첫 번째 단계는 설교자가 선포자(저자)가 청중(수신자)과 접촉하는 소통의 접촉점을 의미하는 Pre-text 1(역사적 해석)을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설교자가 말씀의 선포자(본문의 기록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Text 1(문학적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설교자가 본문에서 말씀 선포자가 그 앞에 있는 청중(기록자의 수신자)의 역사적 & 수사적 상황을 의미하는 Context 1(역사적 해석)을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설교자가 소통의 목적인 공감과 연합의 심층 프레임을 의미하는 Post-text 1(신학적인 해석 혹은 구속사적인 해석)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1) Context 1(청중의 상황)

갈라디아교회에는 교회들 안에 몰래 유입된 다른 사상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했다.⁷³⁾ 바울은 이러한 문제의 유발자들이 누구인지 직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전한 거짓 사상이 무엇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대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의식과 규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갈라디아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수준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갈라디아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상황은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① 율법주의: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한 율법주의 사상은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갈라디아교회에 유입되었다(갈 2:4).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란 동질의 복음 중에 다른 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속성의 메시지를 의미한다.⁷⁴⁾ 이 때문에 갈라디아교회 내부에는 심각한 수준의 교리적인 혼란이 야기되었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수해 준 바울과의 관계까지도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란 존재는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준 사역자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은 상

72) 이승진, “안식일 논쟁 내러티브에 대한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해석과 설교”, 「신학정론」 38/1 (2020/06): 352.

73) 박익수,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 (I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32.

74) 이한수, 『갈라디아서』 (서울: 선교햇불, 2006), 84.

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그들을 참 복음으로 회귀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갈라디아교회에서 발생한 논쟁의 중심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문제의 핵심은 유대 율법주의였다.⁷⁵⁾

② 배교의 징후: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 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유대 율법주의로 전향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바울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사용했던 헬라어 ‘싸우마조’(θαυμμαζω)의 의미가 ‘경악하다’, ‘깜짝 놀라다’라는 사실로 볼 때, 갈라디아교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⁷⁶⁾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바울은 자신의 나쁜 시력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붓을 들었고, 이렇게 기록된 편지가 갈라디아서이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교회의 이러한 징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존재로 여겼다.⁷⁷⁾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다음의 두 가지 결정적인 근거가 있다. 첫째는 바울이 갈라디아교회를 여전히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1:11; 3:15; 4:12, 28, 31; 5:11, 13; 6:1, 6:18). 둘째는 바울이 갈라디아교회를 향해 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로 전향한 갈라디아교회를 강하게 책망하고, 심지어 이방인 주술사들이 사용했던 저주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까지 갈라디아교회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이는 그가 갈라디아교회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바울의 이러한 책망은 어디까지나 갈라디아교회를 올바른 진리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영적 지도자의 애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바울과의 관계 단절과 교회 내 갈등: 바울의 대적자들은 순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교회를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하였다. 갈라디아교회는 복음의 영접과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교회임에도 신앙의 경륜과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던 까닭에 그들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고 말았다. 대적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갈라디아교회는 비극적이게도 이제 바울을 자신들의 대적자로 여기게 되었다.

(2) Pre-text 1(선행-자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 사상을 무너뜨리기

75) Warren W. Wiersbe, 『갈라디아서 강해: 자유누리며 살라』, 심민호 옮김 (서울: 나침판, 1992), 11.

76) 이한수, 『갈라디아서』, 84.

77) 김서택,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267-72.

위한 목적으로 구약 본문을 인용하였다.⁷⁸⁾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총 10회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한다(창세기 12:3; 13:15; 15: 6; 18:18, 신명기 27:26, 하박국 2장, 레위기 18:5, 신명기 27:26).⁷⁹⁾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려 했다. 특히, 바울이 신약으로 가져온 아브라함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 신앙으로의 성화의 과정: 창세기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초신자일 때부터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경험했다. 대표적인 예가 그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다. 이처럼 미성숙한 신자의 모습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심판하시기보다 형언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다지게 되었다. 즉, 그는 불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② 율법 이전의 칭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후사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막에서 불러내시어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세어 보라 하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자손을 약속하셨다(창 15:5).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고, 그 약속은 성취되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는 그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까닭이다.⁸⁰⁾ 사실 그 당시는 할례나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바울이 구약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인용한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 이전에도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갈라디아교회를 미혹한 자들의 잘못된 이론을 깨트리기 위함이었다. 적극적으로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했다.⁸¹⁾

③ 약속과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일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주어질 자식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죄인들을

78) 홍인규, 『바울의 율법과 복음』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159.

79) 최갑중, 『갈라디아서』 (서울: 이레서원, 2016), 358.

80) 홍인규, 『갈라디아서』 (서울: 이레서원, 2007), 126.

81) 유왕재, 『갈라디아서』 (서울: e퍼플, 2021), 44.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즉,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문법적-역사적 해석을 넘어 신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바울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이신칭의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 이로써 바울의 메시지는 구약 인용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바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⁸²⁾ 이는 바울이 구약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공간의 간격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3) Text 1(본문)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 내러티브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표층적으로 드러난 문법 구조만으로는 바울의 심층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석자는 바울의 문체와 구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의미를 통하여 바울의 심층적 의도를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아브라함 내러티브 본문(갈 3:1-24)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가운데 상호본문성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4) Post-text 1(의도된 후속 결과)

‘포스트 텍스트 1’(Post-text 1)은 특정 텍스트를 통해서 파생되는 후속 결과물을 의미한다.⁸³⁾ 이는 특정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작성된 텍스트로 말미암아 새롭게 파생된 역사적 자료들과 쟁점들, 문학 작품들과 새로운 사상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 단계를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 내러티브 본문에서 발견한 바울의 의도는 다음과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복음에 합당한 성화: 갈라디아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의 공격으로 교리적 탈선의 위기에 처했지만, 바울은 대적자들의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약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이때 그가 인용한 구약 이야기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중심사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실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재구성되었다.⁸⁴⁾ 즉, 갈라디아교회가 참 복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적 목적을 지닌 내러티브가 되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구약과 신약의 신학적인 관계성 안에서 올바르게 규명될 수 있으며, 또한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을

82) John W. Stott, 『갈라디아서강해: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문인현·김경신 옮김 (서울: 아가페, 1989), 86-7.

83) 이승진, “삼위일체 중심의 설교학 방법론과 설교학적 상호본문성에 관한 연구”, 65.

84) Hays, 『바울서신에 나타난 구약의 반향』, 182.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⁸⁵⁾ 이런 맥락에서 본서의 정황을 파악하면, 갈라디아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복음을 떠났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달한다.⁸⁶⁾ 그러므로 본서는 갈라디아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울의 편지이다.

②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됨: 바울은 갈라디아교회들이 참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먼저는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바울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길 원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수사적인 전략보다 성령을 의지하였다. 그가 갈라디아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본서 5장에서 제시한 성령이 바로 그 증거이다.

③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의 증거: 바울은 구약 아브라함 이야기를 신약의 교회공동체를 위한 이야기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바울의 내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이렇게 타오른 그의 열정은 갈라디아교회를 설득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다. 비록 갈라디아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임을 바울은 확신한다. 특히,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교회가 종노릇과 자유, 혹은 율법과 그리스도 중에서 하나의 진리를 선택하라고 요청한다.⁸⁷⁾ 이 부분에서 배교한 갈라디아교회를 참 복음으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수사적 의도가 발견된다.⁸⁸⁾

이 과정에서 바울이 진정으로 의존한 것은 인간적인 수사학이 아니라 성령이었다. 바울은 일시적 타락의 현상을 보이는 갈라디아교회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주체가 성령이심을 확신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심각한 문제를 만난 갈라디아교회가 참 복음으로 회귀할 것을 열정적으로 촉구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를 서게 한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자기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3) 아브라함 내러티브 강해설교의 실례

85) Hays, 『바울서신에 나타난 구약의 반향』, 61.

86) 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7』, 출판위원회 옮김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505.

87) 박익수,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 (III)』, 332.

88) 송영목, 『신약과 구약의 대화』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348.

설교학적 상호본문성은 성경 해석 뿐 아니라 설교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Context 2(21세기 청중의 상황), Pre-text 2(주해의 중심사상), Post-text 2(설교의 목적), Text 2(설교 개요 및 설교문)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을 따라 아브라함 내러티브 강해설교를 실현하고자 한다.

(1) Context 2(21세기 청중의 상황)

Context 2는 오늘날 청중의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부의 편중 현상과 이에 따른 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계층 간 소득 격차, 절대 빈곤층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저출산, 청년 취업 포기(N포 세대), 한반도 분단의 상황 등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근래에는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기존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날 청중의 상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상은 청중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건 당신의 해석이지 나의 해석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⁸⁹⁾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율법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 외에도 페미니즘, 종교다원주의, 정치적 올바름 등 세속적인 사상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⁹⁰⁾

(2) Pre-text 2(주해의 중심사상)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인종과 신분과 성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천명한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반드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브라함 내러티브 본문에서 발견한 주해의 중심 사상은 ‘거짓된 유대 율법주의 사상을 거부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로 이해할 수 있다.

(3) Post-text 2(설교의 목적 및 설교의 중심사상)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크게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89) Graham Johnston,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전략』, 최종수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51.

90)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25.

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율법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참 복음’과 대조되는 개념인 ‘율법주의’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의 설교자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청중이 참 복음의 가치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촉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의 중심사상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참 복음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라’로 설정할 수 있다.

(4) Text 2(설교의 개요 및 설교문)

‘텍스트 2’(Text 2)는 설교의 개요 및 설교문을 의미한다. 상기한 설교의 중심사상, 즉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참 복음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라’라는 주제가 담긴 설교의 개요와 설교문의 작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아브라함 내러티브 강해설교의 개요

- 설교 제목: “참 복음으로 돌아오라”
- 도입: 갈라디아교회에 대한 청중의 관심 모으기
- 발단: 갈라디아교회의 설립 배경 소개
- 전개: 갈라디아교회에 발생한 문제 소개
- 절정: 갈라디아교회를 설득하기 위한 바울의 세 가지 논증
 - ‘책망-질문 반복적 형식을 통한 바울의 경험적 논증’(갈 3:1-5)
 -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에 대한 성경적 논증’(갈 3:6-15)
 -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구속-변증법적 논증’(갈 3:16-18)
- 결말: 적용과 결론
- 축복

② 아브라함 내러티브 강해설교문 작성의 원리

이제 설교자는 상기한 아브라함 내러티브 강해설교의 개요를 설교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설교문 작성은 글쓰기의 기본 원리를 따르되, 본문의 중심사상과 그것의 적실한 적용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그 의미가 충분히 표현되어야 한다. 설교문 작성의 목적은 설교 메시지의 발화 효과를 높이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며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마 16:3). 그 이유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청중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Ⅲ. 나가는 글

본 연구는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이 사도들의 구약 인용, 즉 상호본문성 본문에서 발생하는 해석학적 간격을 좁히고, 더 나아가 본문 저자의 수사적인 의도를 반영한 강해설교를 실현하는 데 유용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을 실재론적 관점에서 논증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이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강해설교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을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 내러티브 본문(갈 3:1-24)에 적용함으로써 해석학적 맥락화가 상호본문성 본문에서 발생하기 쉬운 해석학적 간격을 좁히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강해설교를 실현할 수 있는 설교의 모델임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발견된 바울의 궁극적인 의도는 다른 복음으로 전향한 갈라디아교회가 참 복음으로 회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즉, 갈라디아서는 교리적 쟁점에 관한 바울의 호소력 넘치는 편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의 도출은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갈라디아교회를 설득하기 위한 수사학으로 사용된 내러티브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유대주의로 전향하고 있는 갈라디아교회가 참 복음으로 회귀할 것을 촉구하는 바울의 호소력 넘치는 설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은 상호본문성 본문에서 발생하는 해석학적 간격을 좁히고, 더 나아가 설교자로 하여금 본문의 구속 세계를 추체험하게 하여 오늘날의 청중에게 생생한 메시지로 전달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호본문성 본문을 강해설교하는 데 유용하다.

결국, 해석학적 맥락화의 개념은 기존의 강해설교가 이론에만 머문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본문 중심적이면서도 능력 있는 설교라는 사실을 현장의 설교자들에게 확신하게 한다. 이러한 설교자의 인식 전환에서부터 건강한 신앙공동체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권순희. 『작문교육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김영한. “기독교 인식론으로서 해석학적 실재론”. 『기독교철학』 9 (2009/12): 1-49.
- 남은경. “리피르의 성서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내러티브 읽기와 구성주의 페다고지”. 『기독교교육논총』 23 (2010): 353-75.
- 박윤만. “신약 성서 본문의 문맥에 대한 인지 언어학적 고찰”. 『Canon&Culture』 3/1 (2009/04): 241-74.
- 이승진. “복음과 상황의 설교학적인 상관관계”. 『성경과신학』 59 (2011/09): 126-7.
- _____. “성령 하나님과 설교자의 설교학적인 상호관계”. 『신학정론』 32/1 (2014/05): 239-66.
- _____. “안식일 논쟁 내러티브에 대한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해석과 설교”. 『신학정론』 38/1 (2020/06): 349-87.
- 권연경.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5.
- 김동현.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하)』. 서울: 서로사랑, 2010.
- 김서택.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 박익수.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 (Ⅲ)』.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송영목. 『신약과 구약의 대화』.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유왕재. 『갈라디아서』. 서울: e퍼플, 2021.
- 이상현. 『삼위일체, 은혜 그리고 믿음: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이한수. 『갈라디아서』. 서울: 선교햇불, 2006.
-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 조안나. 『성서 언어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 최갑종. 『갈라디아서』. 서울: 이레서원, 2016.
- 한성천 & 김시열.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갈라디아서-에베소서』. 서울: 제자원, 2004.
- 홍인규. 『갈라디아서』. 서울: 이레서원, 2007.
- _____. 『바울의 율법과 복음』.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 정창균. 설교자하우스. “성경의 문학 형식과 설교 형식”. (2020년 9월 22일). 2021년 9월 22일 접속. 해당사이트: <https://preachers.house>.
- Aristotles. 『시학』. 천병희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Brueggemann, Walter.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홍병룡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 Calvin, John. 『칼빈성경주석7』. 출판위원회 옮김.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 Campbell, Charles L. 『프리칭 예수』.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Cilliers, Johan H.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이승진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Day, David. 『성육신적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최승근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 Dewey, John. 『사고와 방법』. 임한영 옮김. 서울: 법문사, 1979.
- Frame, John M.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이경직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5.
- Gibson, Stott M. 『구약을 설교하기』. 김현희 옮김. 서울: 디모데, 2008.
- Goldsworthy, Graeme.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영 옮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권수경 옮김. 서울: SFC, 2013.
- Gerkin, Charles V. 『살아 있는 인간문서: 해석학적 목회상담학』. 안석모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 Hays, Richard B.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서 3:1-4:11의 내러티브 하부구조』. 최현만 옮김.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3.
- _____. 『상상력의 전환: 구약성경의 해석자 바울』. 김태훈 옮김. 성남: QTM, 2020.
- Jeanrond, Werner G. 『신학적 해석학: 해석학의 역사와 특성』. 최덕성 옮김. 서울: 본문과현장사이, 1997.
- Johnston, Graham.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전략』. 최종수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 Kuruvilla, Abraham. 『설교의 비전: 목회 사역의 심장을 이해하기』. 곽철호·김석근 옮김. 서울: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8.
- Long, Thomas G. 『성서의 문학유형과 설교』. 박영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McDill, Wayne. 『강해설교를 위한 12가지 필수기술』. 최용수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Moo, Douglas J. 『BECNT 갈라디아서』. 최원용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 Osmer, Richard R.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김현애·김정형 옮김. 서울: WPA, 2017.

- Pieterse, H. J. C.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정창균 옮김.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 Poythress, Vern S.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학』. 최승락 옮김. 고양: 이레서원, 2018.
- Schreiner, Thomas R. 『바울 서신 석의 방법론』. 이승호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_____. 『존더반 신약주석: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김석근 옮김. 서울: 디모데, 2017.
- Stott, John R. W. 『갈라디아서 강해』, 정옥배 옮김. 서울: IVP, 2007.
- _____. 『갈라디아서강해: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문인현·김경신 옮김. 서울: 아가페, 1989.
- _____.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옮김. 서울: 생명의샘, 2004.
- Trimp, Cornelis. 『구속사와 설교』. 박태현 옮김. 서울: 솔로몬, 2018.
- Vanhoozer, Kevin J.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김재영 옮김. 서울: IVP, 2003.
- Wallace, Ronald S.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 Wiersbe, Warren W. 『갈라디아서 강해: 자유누리며 살라』. 심민호 옮김. 서울: 나침판, 1992.
- Wright, John W. 『하나님 말씀중심의 설교』. 박현신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Barclay, J. M. G. “Mirror-Reading a Polemical Letter. Galatians as a Test Case”. JSNT 31 (1987): 73-93.
- Beardslee, William A. *Biblical preaching on the death of Jesus*. Nashville: Abingdon, 1989.
- Craddock, Fred B.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 Dingemans, G. D. J. “A Hearer in the Pew: Homiletical Reflections and Suggestions”: 1996a. in: Long. Thomas & Farley. E (eds) *Preaching as a Theological Task: World, Gospel, Scripture: In Honor of David Buttrick*.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Ellingsen, Mark. *The integrity of biblical narrative: Story in theology and proclamation*. Minneapolis: Fortress, 1990.
- Fee, Gordon D. and Stewart, Douglas.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Bible*. Grand Rapids:

- Academic, 1982.
- Firet, Jacob. *Dynamics in Pastoring: The Agogic Moment in Pastoral role-fulfill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6.
- Jensen, Richard A. *Telling the Story: Variety and imagination in preaching*. Minneapolis: Augsburg, 1980.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 McClure, John *Other-wise Preaching: A Postmodern Ethic for Homiletics*. St. Louis, MO: Chalice, 1988.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80.
- Stott, John. *Between Two Work: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 Thulin, Richard L. *Retelling biblical narratives as the foundation for preaching*. New York: Pilgrim Press: 1990.
- Warren, Timothy E. "The Theological Process in Sermon Preparation". *Bibliotheca Sacra*. vol. 156. no. 623 (July-Sep 1999): 336-54.
- Wilson, Paul Scott. *The Practice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 Abstract 】

Interpretation and Preaching of Narrative Text(Galatians 3:1-24) Using Hermeneutical Contextualization

Lee, Choon Goo

Because biblical and powerful realization of expository preaching begins with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t is imperative that preachers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 of the three dimensions of the Bible text: theological, hermeneutical, and communicative. Only then, the story of God's redemption that flows throughout the entire Bible can be correctly interpreted and preached by the preacher. The greatest strength of expository preaching, after all, is that preachers can experience and re-enact God's redemptive work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and preaching the text. However, even preachers with the strongest will to realize expository preaching may unintentionally derive interpretation of the text that is different from the intended meaning of the text. Such mistakes are mostly commonly made when preachers are dealing with a difficult text with complex structure; such as quotation of the Old Testament by the apostles in the New Testament. When preaching with such 'intertextual' text, many preachers end up extracting only the superficial meaning of the text, or simply delivering the information of the Old Testament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xt of the New Testament text.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Hermeneutical Contextualization' to enable preachers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tertextuality texts and execute expository preaching that reflects the ultimate intention of the author. Hermeneutical contextualization explains the continuous and dynamic progress of the eternal Word of God in this world from a realist perspective. This concept, which includes all three dimensions of preaching(theological, hermeneutical, and communicative), can be understood as a model for expository preaching; and therefore can be useful for preachers to bridge the hermeneutical gap that often occurs

in the process of preaching with intertextuality texts. To verify this, this study first demonstrates the concept of hermeneutical contextualization from a realist perspective, and then applies it to the 'Abraham Narrative' in Galatians(3:1-24) to provide the direction for expository preaching. By doing so,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concept of hermeneutical contextualization is the most appropriate model for interpreting and preaching 'narrative texts' in the New Testament.

Key Words: Hermeneutical Contextualization, Intertextuality, Abraham Narrative, Re-enactment, Expository Preaching

[발표 2]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독교적 소통과 공감의 가능성 연구



조미나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Ph. D.)

국문 초록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온라인을 통해 상호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공간 속에서 교회공동체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공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활동이 과연 사람들 간의 공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상공간에서의 소통이 기독교적 공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 기독교적 공감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등장 과정과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공감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 기독교적 공감의 실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와 괴리된 허구의 세계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소통 활동은 인격적 상호작용이 적용되는 공감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공동체가 추구하는 복음전파의 현장에서 가상공간이 제외될 수 없으며, 가상공간 안에서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적극적인 공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 안에서도 기독교적 소통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신앙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감을 전달해야 하는 것 역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메타버스, 가상공간, 인터넷 네트워크,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독교적 소통과 공감

I. 들어가는 글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은 최근 회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었다.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Mark Elliot Zuckerberg는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를 넘어 가상현실(VR)과 같은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이름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¹⁾ 페이스북의 수장으로서 Zuckerberg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단순한 개념 정의에서 끝나지 않는다. Zuckerberg에 의하면, 새로운 세대에게 인터넷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가상환경이면서, 이제 그냥 쳐다보는 인터넷이 아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체화된 인터넷” 개념이다.²⁾ 흥미로운 것은 2004년에 설립된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Meta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중장년이 된 초창기 사용자와 달리 현재 MZ 세대에게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³⁾ 페이스북의 Meta 변경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 공간 안에서 직접 만나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페이스북을 만들고 싶은 Zuckerberg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명칭 변경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메타버스와 메타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사용자의 60.6%가 페이스북을 이용할 만큼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SNS이다.⁴⁾ 이러한 페이스북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장소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택했다는 사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소통의 장소로서 활용 가능한 가상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로 게임을 위한 플레이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가상공간이 이제는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결의 장소가 된 것이다.

1) “회사명 ‘메타’로 변경하는 페이스북 ... 이유는?”, BBC News 코리아 (2021년 10월 29일), 2022년 7월 18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086459>.

2) 한상기, “페이스북이 메타로 간 이유는?”, (2021년 KISA Report 11월호_1), 2022년 7월 18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kisa.or.kr/20302/form?postSeq=583&page=2>.

3) 한상기, “페이스북이 메타로 간 이유는?”

4) “Facebook 통계 2022”, (2022년 5월 26일), 2022년 7월 19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websiterating.com/ko/research/facebook-statistics/#chapter-2>.

급변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독교 소통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연하게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거부감의 감소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선호하는 설교를 찾아 듣는 현상의 증가⁵⁾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소통하던 기독교인들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에 소통의 청취자(listener)로서만 참여 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통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 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터넷 기술로 말미암아 현대인의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이 되었다. 인터넷은 인간 소통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통 도구가 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공감의 필요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 교회는 현대인과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 기독교적 공감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메타버스 가상공간이 등장하기까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과정과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 등장한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필요한 기독교의 공감 형성 논의를 위해 메타버스 세계를 바라보는 교회 인식에 관한 논의와 함께 최근 긍정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기독교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 적용 가능한 기독교적 소통과 공감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것은 메타버스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환경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의 교제와 만남을 위한 제언이며, 궁극적으로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전통적 기독교적 가치와 영성을 대중과 소통함으로써 복음전파라는 교회의 중요한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II. 펴는 글

1. 인터넷 네트워크의 등장

5) 장형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예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인들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 『한국종교사회학회』 9/2 (2021): 55-71.; 황신영, “빅데이터를 통해 본 언택트(untact) 사회의 설교 선호도 분석: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유튜브 주일 예배 설교 영상 조회 수를 중심으로”, (목회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20), 12-58.

최근 한국사회는 비약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덕분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한 인터넷 강국이 되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지수인 'ICT 발전 지수'에서도 한국은 최근까지 순위를 발표하였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을 드러내었다.⁶⁾ 2021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무려 96.5%에 달하고 있다.⁷⁾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인터넷이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로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멀티미디어의 융합화를 주도하는 인터넷의 발달은 최근까지 그 변화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소통의 통로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SNS의 경우, 사람들은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세계 각처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 도구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소통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부터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을까?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변화 과정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는 미디어의 변천사라고 말해도 될 만큼 미디어의 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통의 매체로 등장하는 미디어의 발전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질 좋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아직 문자를 발명하기 전 구술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은 주로 발성과 발화된 음성의 청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면대면 대화에서 발화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전달과 동시에 사라지고, 메시지의 내용은 사라진 소리에 대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Walter Ong은 이러한 구술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대

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0년 국제 ICT 통계 제출 및 지수 관리방안 연구(Study on Analyzing and Enghancing Internet ICT Statistics/Indices)”, 「국가R&D연구보고서」(2020년 12월).

7) 인터넷-KOSIS 국가통계포털, (2021년 9월 30일), 2022년 7월 19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A13&conn_path=12.

해 논리적 문장보다는 반복적이고 강조된 표현을 사용하며 경험 위주의 편향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⁸⁾ 구술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성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를 공유하는 것이 공감 형성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자와 인쇄술의 발명 이후 구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를 통해 전달되었던 소통 방식은 글자와 그림을 통해 소통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성은 전달된 메시지를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자와 인쇄술의 중요성은 저자와 독자가 만나지 않더라도 텍스트만을 통해서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에 있다. 즉, 구술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였던 시공간의 제한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상황에서 자유로운(contest-free) 언어”, 그리고 “자율적인 담론”이 확립되었다.⁹⁾ 문자를 매개로 하는 소통 방식은 문서를 단독으로 기록하였던 기록자나 그것을 단독으로 해석하려는 독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의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¹⁰⁾ 이러한 특성은 인쇄 매체의 발달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인쇄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양상은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전자미디어 시대에 이르러 인간 대 인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대 사물로의 영역으로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라디오와 TV 같은 전자미디어의 등장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구술적 상호관계성을 복원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¹¹⁾ 전자미디어가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자시대의 시각적 공간에 갇혀 있던 말은 그 특유의 청각적 감각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전자미디어의 기술적 발달은 시각적 상호작용의 강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실제로 전자미디어 이후 강화된 시각적 기능은 인터넷 공간, 특히 가상공간 안에서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공감의 장을 경험하게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전자미디어 시대 이후 사람들이 이야기의 내용과 더불어 이야기의 방식이나 형식에도 주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Casey Man Kong Lum에 의하면, 전자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진 시간적, 공간적, 상징적, 물리적 구조의 편향성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인식과 지각을 가져왔다.¹²⁾ Lum의 주장은 전자미디어 이후 새롭게 등

8)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67-77.

9)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28.

10) 이승진, “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에 따른 기독교 설교의 소통 전략”, 『복음과 실천신학』 48 (2018): 125. (<https://doi.org/10.25309/kept.2018.8.15.107>)

11) 이동후, 『미디어 생태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8.

12) Casey Man Kong Lum, *Perspectives on Cultu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 (서울: 한나래, 2011), 91-92.

장한 인터넷 매체가 가져온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구조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현장 안에서 전통적인 올드미디어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인식하고 지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상호작용성

J. C. Merrill과 R. L. Lowenstein은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네트워크(network or interactional)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명명하였다.¹³⁾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¹⁴⁾ 첫째,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 둘째, 각자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일방향성 상호작용을 쌍방향성 상호작용으로 바꾸었다는 데 있다.¹⁵⁾ 쌍방향 상호작용성에서 나타나는 개방성과 상호담론은 커뮤니케이션의 피드백을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으로 높여주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성의 차이는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다.

구분	커뮤니케이션 모델	피드백	상호작용성	연결된 source /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source
대면 커뮤니케이션	일 대 일 (one-to-one)	○	높음	적음
매스 커뮤니케이션	일 대 다수 (one-to-many)	X	없음	많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다수 대 다수 (many-to-many)	○	높음/중간	매우 많음

< 그림1. 대면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비교 >¹⁶⁾

13) 오택섭 외 2인, 『뉴미디어와 정보사회』(파주: 나남, 2020), 25. by C. Barker & P. Gronne, 1996,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penhagen Business school. 재인용.

14) 오택섭 외 2인,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25.

15) 매스 미디어는 대중매체로서 대량 생산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특징을 가졌다. 이러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TV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스미디어와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공감 방식은 단순하고 수동적이며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림1이 보여주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범위 안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으로서 구술언어의 장점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피드백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인터넷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인격적 상호작용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다. 기기로서 미디어 속성을 가진 인터넷 네트워크의 기계적 상호작용성이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통에서 상호작용성은 인간 대화자에 의해 결정된다. 소통에서 중요한 피드백을 완성하는 상호작용성은 인간 대화자 간에 완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의 질을 결정하는 피드백은 오직 인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나은영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간 중심의 열린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나은영에 의하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성은 쌍방향적이고 능동적이면서 동시에 일대일, 일대 다수, 다수 대 일, 또는 다수 대 다수의 소통이 모두 가능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대면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아닌, 인간과 미디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공감 형성을 완성하는 요인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인격적 상호작용성이다. 오늘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의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며,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한다. 여가 시간에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SNS를 통해 사회적 인맥을 쌓기도 한다. 나은영의 고찰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공감과 배려로 나타나는 인격적 상호작용성을 상기시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운 개인 사업자를 돕기 위한 ‘돈쫄’ 행렬¹⁸⁾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인간적 상호작용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16) 권상희, “인터넷 미디어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차원 연구: 미디어양식별 이용자의 인식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2 (2007): 49. 재인용.

17) 나은영,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2/1 (2006): 94.

18) ‘돈쫄’이란 용어는 미담이 들려온 가게나 사람에게 매출 상승 등 선행의 대가를 받게 하자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이다. 채혜선, “공짜치킨집 이어 생일피자집...‘미담엔 돈쫄’ 아름다운 공식”, The JoongAng, (2021년 8월 19일), 2022년 7월 22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31024>.

인터넷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기계적 상호작용과 인격적 상호작용은 언제나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주체는 결국 인간이라는 점에서 상호 간의 의사소통에서 공감을 유발하는 요소는 결국 상호 인간의 감정적 교류가 교차할 때라고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채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현존성”이 상호작용성의 중요한 핵심인 것이다.¹⁹⁾ 디지털 세계의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와 콘텐츠의 교류라기보다는, 좋아하는 콘텐츠를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사용자의 ‘자아실현성’과 그 경험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공유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 공간을 가상공간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가상 공간은 최근 메타버스라는 명칭으로 우리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2.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 등장한 메타버스 가상공간

2021년 6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지금은 메타버스에 올라탈 시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²⁰⁾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대학교의 가상 입학식에 신입생 아바타가 대신 참석한 것과 가상공간에서 열린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개최 소식, 대통령 후보가 가상세계 안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서 유세를 펼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이것을 볼 때 메타버스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메타버스는 1992년 Neal Stephenson의 SF 소설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용어로서 잘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시대의 차세대 플랫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2017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2021년까지 매해 개최되었던 ‘SEOUL VR AR EXPO’가 2022년부터 ‘METAVERSE EXPO’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개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메타버스의 열풍을 짐작하게 한다.

미국의 기술 연구단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그리고 가상세계(virtual worlds) 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²¹⁾ 메타버스

19) 이주희, “뉴미디어 콘텐츠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고찰”,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1/3 (2020): 507.

20) 이동훈, “지금은 메타버스에 올라탈 시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21년 6월 7일), 2022년 7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kbfg.com/kbresearch/vitamin/reportView.do?vitaminId=2000306>.

21) 김상균, 『메타버스』 (서울: 플랜비, 2020), 23.

의 분류는 기술적 의미의 중요성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메타버스의 영향에 대해 잘 알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이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네비게이션이다. ‘라이프로그’은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며 때로는 공유하기도 하는 활동이다. ‘거울세계’는 구글어스와 네이버맵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와 항공사진 같이 실제의 모습을 가상현실 안에서 구현하는 메타버스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컴퓨터 미디어나 인터넷 미디어가 매개하여 사람의 두뇌 속에서 지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으로서 현실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디지털 공간이다.²²⁾ 과거 가상공간은 현실과 철저히 분리된 공간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지만,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은 가상공간과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가상공간의 개념적 장벽을 허물었다.²³⁾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적 발달로 인해 말하고, 듣고, 보고, 심지어 움직일 수 있는 현실상의 경험이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처럼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도 소통과 공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Douglas C. Estes와 Jean Baudrillard의 이론을 통해 가상세계 개념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대한 논의

Douglas C. Estes는 가상세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를 위해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 허구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현실 세계는 의사소통 참여자가 상대방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세상이다. 온라인상의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에 대한 기대감의 세계이며 그 기대감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의 한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허구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와도 완전히 괴리된 세계이기에 현실 세계의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세계이다. 따라서 가상세계와 허구 세계는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상상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 구분된 또 다른 세계로서,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성과 공감의 정도에 따라서 의사소통 참

22) “가상공간”, 2022년 7월 22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iki.hash.kr/index.php/%E%A%B0%80%EC%83%81%EA%B3%B5%EA%B0%84>.

23) 이현정, “AI 시대, 메타버스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감 개념 필요성에 대한 담론”,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1/3 (2021): 80.

24) 남성혁, “디지털 선교지로서 메타버스 세계의 가능성”, 『제8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2022): 368. Douglas C. Estes, *Simchurch: Being th Church in th Virtual World*, (Grand Rapid, MI: Zondervan, 2009), 28-31. 재인용.

여자의 인식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잠깐의 환상으로 떠오르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Estes에 의하면 가상세계는 마치 컴퓨터 게임과 같은 환상의 세계 같은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다.²⁵⁾

Estes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가상세계가 허구의 세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의 경험을 기반으로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현실 세계를 반영한 공간인 것이다. 가상세계에 대한 Estes의 정의는 가상세계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성이 전혀 허구가 아님을 말해준다.

Estes와 달리 Baudrillard는 가상세계를 시뮬라크르 허구 이미지 안에 세워진 허구의 세계로서 비판적으로 성찰했다. 현대 사회 철학자인 Jean Baudrillard는 실제 세계에서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가상의 이미지들을 ‘시뮬라크르(simulacre)’라고 정의하였다. 시뮬라크르는 가상, 거짓 그림 등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시뮬라크룸(simulacrum)’에서 유래한 말이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이미지를 뜻한다.²⁶⁾ Baudrillard에 의하면 가상세계는 “허구적인 정보와 모델 이미지, 그리고 정보통신학적 게임 위에 세워진” 시뮬라크르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다.²⁷⁾ 결국 가상공간계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끄덕이게 하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실제처럼 가공된 시뮬라크르의 이미지들이라는 것이다. Baudrillard의 주장은 가상공간이 허구적 이미지로 이루어진 환경이기에 실제 세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예배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가상세계에 대한 Estes와 Baudrillard의 관점은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Estes는 그의 ‘가상교회론(SimChurch)’을 통해 온라인에 존재하는 가상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현실 교회공동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²⁸⁾ 그에 비해 Baudrillard의 시뮬라크르는 가상세계의 허구적 이미지가 현실 교회공동체의 소통, 즉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인용되고 있다.²⁹⁾ 가상세계가 허구의 세계라는 Baudrillard의 주장은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와 분리된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가공된 시뮬라크르의 이미지

25) 김도일, “가상세계 속에서의 교회의 의미: 더글라스 에스티스(Douglas Estes)의 ‘가상교회론(Sim Church)’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5/4 (2013): 154. 재인용.

26)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2001), 16.

27) Baudrillard, 『시뮬라시옹』, 198.

28) 김도일, “가상세계 속에서의 교회의 의미: 더글라스 에스티스(Douglas Estes)의 ‘가상교회론(Sim Church)’에 대한 연구”, 155-156.

29) 이승진,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 『신학과 실천』 54 (2017): 68-72.

로 채워진 가상공간일지라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 존재는 허상이 아니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계적 상호작용성이 적용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작용하는 인격적 상호작용성의 실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의 한 부분이며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가상세계는 상상의 세계이지만 허구의 세계가 아니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단지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가상공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세계이다. 김상균에 의하면 사람들은 가상세계를 이루는 세계관, 철학, 규칙, 이야기, 지형, 사물 등을 탐험가나 과학자와 같은 자세로 누비면서 탐험한다.³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가상공간 안에서도 전혀 모르는 이들과도 반갑게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2)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 실현되는 소통과 공감의 실례

(1) 실례 1. 2021년 12월 18일 국내 게임 플랫폼인 로스트아크(Lost Ark)의 온라인 간담회가 열렸다. 로스트아크의 디렉터가 직접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은 그동안 유저들의 불평을 샀던 게임 개발사 측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유저들의 요구사항에 맞추고자 게임 이득의 17%에 해당하는 이익 창출을 포기한다는 디렉터의 발언은 간담회를 지켜보던 수많은 이용자들의 감동과 찬사를 불러일으켰다.³¹⁾ 디렉터가 유저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소비자들인 유저들의 불만을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채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타 게임사들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그러한 평가가 나온 것이다. 그 결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2022년 2월에는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게임 플랫폼 동시 접속자 132만 명을 기록,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³²⁾ 이러한 결과는 다른 게임업체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³³⁾ 평소 자신이 하던 게임에 불만을 갖던 게임 이용자들이 로스트아크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로스트아크의 소통 전략은 게임 회사들이 유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익 창출’에서

30) 김상균, 『메타버스』, 213.

31) “2021년을 마무리하는 로스트아크 겨울 대축제”, (2021년 12월 18일), 2022년 7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TL39Vh3hPto&ab_channel=%EB%A1%9C%EC%8A%A4%ED%8A%B8%EC%95%84%ED%81%ACLOSTARK

32) 윤아름, “로스트아크, 공감의 저력”, (2022년 2월 14일), 경향게임스, 2022년 7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233>.

33) 문대찬, “‘로스트아크’의 소통 공식, 게임업체도 바꿨다”, 쿠키뉴스, (2022년 7월 22일), 2022년 7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7210180>.

‘유저 친화 전략’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익 창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소통과 공감’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2) 실례 2. 이브온라인(EVE ONLINE) 게임은 누적 가입자 약 4,0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들 중 하나이다.³⁴⁾ 이브 온라인은 아바타 캐릭터를 활성화하면서 아바타용 치장 아이템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브온라인은 한 달에 한 번 게임 이용료를 내는 정기 결제 유료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는 사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함선이나 총알 등 게임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돈을 받고 팔고자 하려는 전략이 유저들에게 누출되었다. 유저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게임 개발자는 유저들을 무시하는 발언과 불통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화가 난 유저들은 게임 공간 속에서 적이 아닌 이브온라인의 최대 상업지역 시설을 총공격하기 시작했다. 게임의 특성상 상업지역은 당연히 파괴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공격의 여파로 렉이 걸리고 서버 불안정으로 인해 게임이 다운되고 말았다. 항의 시위의 연장으로 이용자들이 정기 구독을 해지하기 시작하였고, 해지 며칠 만에 사용자들의 약 8프로가 감소되었다. 이에 놀란 개발사는 이용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으며 모든 계획을 없던 일로 하였다. 이후 개발사는 각성하였다는 의미에서 공격 받았던 상업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 동상을 온전한 형상에서 파괴된 형상으로 바꾸어 보존하고 있다. 개발사의 소통 부재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브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 역사의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⁵⁾ 이브온라인 시위 사건은 온라인 가상공간 안에서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창출하려 했던 기업의 실패 사례로서 가상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실례라고 말할 수 있다.

(3) 실례 3. 연구자가 활동하는 가상공간의 게임 플랫폼³⁶⁾은 주로 20대~3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모두 가상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선택한 아바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두가 실제로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얼마 전 연구자는 게임 플랫폼에서 이상한 모양의 아바타를 발견하였다. 몽이(닉네임 가명) 아바타는 서 있지 않고 게임 현장의 바닥에 누워있었다. 한창 게임이 진행되는 현장에

34) 2022년 7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eveonline.com/>.

35) "온라인 게임의 역사: 게임 속 또 다른 사회 2편", (2014년 2월 8일), 2022년 7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thisisgame.com/webzine/community/tboard/?board=36&page=3&n=200132>.

36) 연구자가 제시한 실례는 2021년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VR 기기 ‘오쿨러스 퀘스트2’를 통한 가상공간 안에서의 체험에 의거한다.

서 바닥에 누운 아바타는 연구자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진행할 때도 몽이는 계속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니 몽이는 많이 아픈 상태였다. 오늘 많이 아파서 회사도 못하고 자취방 침대에서 하루종일 누워만 있는데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가상공간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현실 세계에서 실제 몽이는 VR 기기를 머리에 쓰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다. 몽이 아바타는 게임하는 시간 내내 바닥에 그저 누워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몽이 아바타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게임하는 내내 계속해서 몽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걸어주었다. 게임을 마치고 오픈 단톡방에는 몽이의 감사 메시지가 올라왔다.

상기 실례들에 관해 혹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왜 가상공간에서 실현되는 소통의 실례들이 죄다 게임에 관련된 것들일까?’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게임 기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 플랫폼이 주로 온라인 게임의 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³⁷⁾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개인적인 게임의 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영향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주고받는 생각과 행동은 현실 세계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3.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공감 형성 필요성

최근 코로나19의 영향과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잇는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신앙공동체를 구성하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온라인 게임이나 SNS 사용 등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의 활동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메타버스 가상공간은 이미 또 다른 소통의 장으로서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하였던 땅끝까지의 전도가 이제는 지구상의 땅끝이 아니라, 가상세계의 땅끝이 되었다.³⁸⁾ 이러한 변화는 가상세계가 복음 전도와 교회 교육의 활동 영역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인다.

37) 박지윤, “당신은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할 수 있나요?”, Byline Network, (2022년 5월 20일), 2022년 7월 24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byline.network/2022/05/20-183/>.

38) 백광훈, “디지털 시대의 땅 끝, ‘메타버스’에서 복음을 외치다”, 「새가정」 3 (2022): 78-81.

1)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대한 기독교 인식 전환의 필요성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 및 교역자 110명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교사 및 교역자들의 메타버스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³⁹⁾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질문은 총 3가지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질문1. 메타버스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② 질문2. 메타버스의 주일학교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③ 질문3. 메타버스 행사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가?

①번 질문에 대해 가상현실과 교회에서의 예배는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고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55%, 메타버스가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심은 26%였다. 나머지 20%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②번 질문의 결과는 어떨까?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53%,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2%였으며 나머지 25%는 부정적인 의견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③번 질문인 메타버스 체험 경험에 대해서는 성인 교사/교역자의 81%가 ‘없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청소년은 68%가 메타버스 체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교육 현장에서 사역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인식이다. 흥미로운 것은 메타버스 주일학교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22%라는 숫자와 메타버스 체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의 숫자의 관계이다. 이것은 메타버스를 일부 활용하되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53%의 설문자들이 메타버스 체험이 없는 사람들(81%) 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메타버스 체험 경험과 부정적 인식이 겹칠 수는 있다. 여기에는 메타버스 체험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별도의 설문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기관의 설문조사나 연구⁴⁰⁾ 등을 참고할 때 메타버스 체험이 메타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의 메타버스 참여 경험은 68%로 성인 교사/교역자의 세 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 경험이란 것은 아마도

39) “주일학교 교사/교역자의 메타버스 인식”, 교갱뉴스, (2022년 3월 30일), 2022년 7월 24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ww.church.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6>.

40) 노희용, “메타버스 인식 변화 분석”, 「KISDI STAT」, 2021년 9월 15일, https://mediasvr.egentouch.com/egentouch.media/apiFile.do?action=view&SCHOOL_ID=1007002&URL_KEY=ec9644fb-d9a7-4d0a-b6d6-8c21aa7c9c2f.

온라인 게임을 통한 경험일 것이다. 하지만 게임을 통한 메타버스 체험이라 할지라도 가상세계 체험은 개인적인 소중한 경험이다. 청소년들에게 가상세계에서의 게임 활동은 성인들의 현실세계에서의 친목 활동과 동일하기 때문이다.⁴¹⁾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가상공간 안에서의 소통 활동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활동이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공감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내 성인 교사들과 교역자들은 청소년들의 세계관과 공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가상세계 체험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교회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교역자와 교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회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공감 의식은 학습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요소이다.⁴²⁾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학습자에게는 교사의 말을 신뢰하고 경청할 수 있는 학습 동기가 될 수 있으며, 교사 역시 학습자와의 대화에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와 교회교육을 잇는 연구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 예배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2)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대한 교회의 인식 변화 사례

(1) 교재 개발 사례

교회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메타버스와 교회학교’라는 단어의 조합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예장합동총회교육개발원은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을 접목시켜 교회학교 ‘주기도문’ 교재를 개발하였다.⁴³⁾ 학습자들은 교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가상현실 세계인 ‘킹스랜드’를 돌아다니면서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 등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다. 메타버스를 통한 교회교육이 뉴미디어 기기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프로그램과 앱 제작은 비용과 기술이 들어갈

41) 김진희, “스마트 학생복, ‘메타버스 이용 현황 및 인식’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공개”, 이코노믹리뷰, (2021년 9월 23일), 2022년 7월 25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ww.eco 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752>.

42) 조미나, “4차산업혁명시대 지식 주체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 교사의 공감 형성 필요성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61 (2021): 9-10.
(<https://doi.org/10.25309/kept.2021.11.15.043>)

43) 천수연, “가상공간 ‘킹스랜드’에서 주기도문 배워요, 예장합동 메타버스 활용 교재 선보여”, 노컷뉴스, (2021년 12월 6일), 2022년 7월 25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v.dau m.net/v/20211206191204428>.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킹스랜드 같은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는 유의미한 가치를 주고 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VR을 이용한 ‘어드벤처 천지창조 VR’이라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⁴⁴⁾ 이 역시 텍스트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가상세계 안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된다. 온누리교회에서 실행하는 VR 체험학습은 부모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교회 안에서 메타버스 세계를 바라보는 교육적인 관점을 부모 세대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유익을 주고 있다.

(2) 연구 사례

이화정은 누가복음 16장 19절-31절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제페토 앱에서 재현하고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연구하였다.⁴⁵⁾ 제페토는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AR), 3D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제작한 아바타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메타버스 가상세계이다. 참가자들은 텍스트로 이해한 성경 이야기를 제페토라는 가상세계 플랫폼 안에서 실행함으로써 자신만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가상세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회교육 전용 앱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국내 교회교육 상황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상업용 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교회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화정의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기독교공동체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세계로서 모든 한국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이며 실제적인 교회교육의 현장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복음전파와 교회교육의 현장으로 등장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의 기독교적 공감을 제안하고자 한다.

4.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독교적 공감의 실천을 위한 제언

1)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인해 소통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온라인 예배 등의 활성화는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에서 전통적인 소통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이후

44) “2021 어드벤처 천지창조 VR”, 온누리교회, (2021년 9월 16일), 2022년 7월 25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youtu.be/rwUUPkR5nyk>.

45) 이화정, “Palmer의 배움의 공간 개념과 메타버스 가상공간 연결을 통한 기독교교육 가능성 연구 :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공간 바이블드라마’, 「복음과 실천신학」 63 (2022). (<https://doi.org/10.25309/kept.2022.5.15.105>)

온라인 예배의 호응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일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어도 무방하다고 답하였다는 결과는⁴⁶⁾ 기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경험한 온라인 소통의 친숙함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2) 가상세계를 통한 기독교적 소통과 공감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의 영역은 이미 가상공간 안에서 VR church 같은 온라인 교회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⁴⁷⁾ 물론 온라인 교회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입장에 따른 찬반 논쟁과 현실적으로도 목회 실천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가상공간 안에서도 신앙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독교적 공감 욕구이다. 교회는 이들에게도 기독교의 디아코니를 통한 헌신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 안에서도 기독교적 소통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신앙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감을 전달해야 하는 것 역시 교회공동체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3) 메타버스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인격적 상호작용 안에서 소통하는 협력자로서 구성원들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 전달자와 응답자라는 수동적 관계 안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공감은 타자의 정서를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⁴⁸⁾ 따라서 기독교 진리를 메시지로 전달해야 하는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격적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즉 만남은 이미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아가페적 만남이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제언할 것은 메타버스 가상공간 역시 중요한 삶의 공간으로서 기독교적 공감이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 공간임을 기억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주로 게임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게임 등 오락을 목적으로 가상공간 안에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적 소통의 목적을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현재까지 실행되는 세컨드라이프(secondlife)에는 약 15개 정도의 기독교 가상교회가 있

46) 장형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예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인들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 「한국종교사회학회」 9/2 (2021): 55-71.

47) 윤영민, “온라인 교회의 합당성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63 (2022): 144-155. (<https://doi.org/10.25309/kept.2022.5.15.140>)

48) 변재봉, “공감피로를 줄이기 위한 ‘초연한 관심’으로서 임상적 공감의 제안과 목회상담학적 함의”, 「복음과 실천신학」 63 (2022): 76.

(<https://doi.org/10.25309/kept.2022.5.15.072>); 고용수,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 형성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2 (2015): 26.

으며, 로블록스에는 약 150개의 가상교회가 존재한다.⁴⁹⁾ 또한 로블록스 커뮤니티 교회(Roblox Community Church)에는 약 11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⁵⁰⁾ 한국교회가 여전히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게임의 장으로만 인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한다면, 이것은 젊은 세대의 교회 유입을 막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Ⅲ. 나가는 글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의 기능을 무한대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는 기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상호작용성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피드백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정보성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소통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인격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메타버스가 최근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로 인식되고 있지만, 메타버스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하고 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그, 거울세계로 구현되는 메타버스의 공통점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 현실과 차단된 허구의 세상이 될 수 있지만, 상상력이 가미된 현실 세계의 또 다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메타버스 가상공간은 사람들에게 소통과 공감의 장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회공동체가 전도와 교육의 현장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공간일지라도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소통하고 공감을 요구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통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과 함께 응답하고 공감해야 하는 책임이 이 시대의 교회공동체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독교적 공감의 실천을 위한 제언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인해 소통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가상세계를 통한 기독교적 소통과 공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셋

49) 남성혁, “디지털 선교지로서 메타버스 세계의 가능성” 『제8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2022): 371.

50) “The Robloxian Christians”, 2022년 7월 25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therobloxianchristians.org/>.

째, 메타버스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인격적 상호작용 안에서 소통하는 협력자로서 구성원들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메타버스 가상공간 역시 중요한 삶의 공간으로서 기독교적 공감의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 공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가치는 언제든지 또 다른 모습으로 인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인식하고 탐색하는 것에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일지라도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소통 욕구, 즉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에서도 소통과 공감의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이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가상세계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수.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 형성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2 (2015): 13-46.
- 김도일. “가상세계 속에서의 교회의 의미: 더글라스 에스티스(Douglas Estes)의 ‘가상교회론(Sim Church)’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5/4 (2013): 141-168.
- 나은영.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2/1 (2006): 93-127.
- 남성혁. “디지털 선교지로서 메타버스 세계의 가능성”. 「제8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2022): 365-378.
- 백광훈. “디지털 시대의 땅끝, ‘메타버스’에서 복음을 외치다”. 「새가정」 3 (2022): 78-81.
- 변재봉. “공감피로를 줄이기 위한 ‘초연한 관심’으로서 임상적 공감의 제안과 목회상담학적 함의”. 「복음과 실천신학」 63 (2022): 72-103. <https://doi.org/10.25309/kept.2022.5.15.072>.
- 오택섭·강현두·최정호·안재현.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파주: 나남, 2020.
- 윤영민. “온라인 교회의 합당성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63 (2022): 140-180. <https://doi.org/10.25309/kept.2022.5.15.140>.
- 이동후. 『미디어 생태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이승진.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 「신학과 실천」 54 (2017): 227-264.
- . “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에 따른 기독교 설교의 소통 전략”. 「복음과 실천신학」 48 (2018): 107-148. <https://doi.org/10.25309/kept.2018.8.15.107>.
- 이주희. “뉴미디어 콘텐츠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고찰”.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1/3 (2020): 505-512.
- 이현정. “AI시대, 메타버스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감 개념 필요성에 대한 담론”.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1/3 (2021): 79-90.
- 이화정. “Palmer의 배움의 공간 개념과 메타버스 가상공간 연결을 통한 기독교교육 가능성 연구 :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공간 바이블드라마’”. 「복음과 실천신학」 63 (2020): 45-61. <https://doi.org/10.25309/kept.2022.5.15.105>.
- 장형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예배에 대한 한국 개신교인들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 「한국종교사회학회」 9/2 (2021): 49-71.
- 장훈.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 「문화 및 사회문제」 19 (2013): 259-283.

- 조미나. “4차산업혁명시대 지식 주체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 교사의 공감 형성 필요성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61 (2021): 43-71. <https://doi.org/10.25309/kept.2021.11.15.043>.
- 황신영. “빅데이터를 통해 본 언택트(untact) 사회의 설교 선호도 분석: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유튜브 주일 예배 설교 영상 조회 수를 중심으로”. 목회신학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20.
- Baudrillard, Jean.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역. 『시물라시옹』. 서울: 민음사, 2001.
- Lum, Casey Man Kong. ed. *The Media Ecology Tradition*.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 서울: 한나래, 2011.
- Ong, Walter J. *Orality and Literacy*.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9.
- “회사명 ‘메타’로 변경하는 페이스북 ... 이유는?”. BBC News 코리아. 2021년 10월 29일. 2022년 7월 18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086459>.
- “Facebook 통계 2022”. 2022년 5월 26일. 2022년 7월 19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websiterating.com/ko/research/facebook-statistics/#chapter-2>.
- 인터넷-KOSIS 국가통계포털. 2021년 9월 30일. 2022년 7월 19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A13&conn_path=I2.
- “가상공간”. 2022년 7월 22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iki.hash.kr/index.php/%EA%B0%80%EC%83%81%EA%B3%B5%EA%B0%84>.
- 윤아름. “로스트아크, 공감의 저력”. 2022년 2월 14일. 경향게임스, 2022년 7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233>.
- "온라인 게임의 역사: 게임 속 또 다른 사회 2편". 2014년 2월 8일. 2022년 7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thisisgame.com/webzine/community/tboard/?board=36&page=3&n=200132>.
- 박지윤. “당신은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할 수 있나요?”. Byline Network. 2022년 5월 20일. 2022년 7월 24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byline.network/2022/05/20-183/>.

“주일학교 교사/교역자의 메타버스 인식”. 교갱뉴스. 2022년 3월 30일. 2022년 7월 24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6>.

노희용. “메타버스 인식 변화 분석”. 「KISDI STAT」. 2021년 9월 15일. https://mediasvr.egentouch.com/egentouch.media/apiFile.do?action=view&SCHOOL_ID=1007002&URL_KEY=ec9644fb-d9a7-4d0a-b6d6-8c21aa7c9c2f.

천수연. “가상공간 ‘킹스랜드’에서 주기도문 배워요, 예정합동 메타버스 활용 교재 선보여”. 노컷뉴스. 2021년 12월 6일). 2022년 7월 25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v.daum.net/v/20211206191204428>.

“The Robloxian Christians”. 2022년 7월 25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s://www.thebloxianchristians.org/>.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hristian communication and empathy in the Metaverse virtual space

Cho, Mina

In the metaverse virtual space, where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are interconnected and interacting online, the time has come for the church community to think about how to communicate with people and sympathize with them.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communication activities in virtual space such as metaverse can lead to empathy between people, and whether communication in virtual space can lead to Christian empath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ommunication for the formation of Christian empathy within the metaverse virtual space. To this end, in this study, the emergence process of the Internet network and the metaverse virtual space as a new field of communication were examined. Next, the necessity of forming empathy for Christian communication in the metaverse virtual space was presented, and finally, a suggestion for practicing Christian empathy in the metaverse virtual space was presented.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drawn through the above stud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cannot be said that the virtual world is a fictional world separated from the real world, and the communication activities of people working in it can be a place for empathy where personal interaction is applied. Therefore, the virtual space cannot be excluded from the field of evangelism pursued by the church community, and the church needs to show active empathy to those who want to communicate within the virtual space. This is because it is the duty of Christians living in the real world to deliver God's love and sympathy for the formation of faith to those who demand Christian communication not only in the real world but also in the virtual space.

Key words: Metaverse, virtual space, internet network, interaction, communication, Christian communication and empathy